

“성찰한다면 자연 속 삶도 큰 즐거움”



고맙다 잡초야
황대권 지음
도솔출판사 펴냄
1만3천원

“흔히들 명상이라고 하면 정적인 모습만 떠올리는데 매우 격렬한 동작일지라도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히 관(觀)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명상이 된다.”

‘야생초 편지’로 잘 알려진 황대권 씨의 이른바 ‘장작패기 명상법’이다. 간헐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하며 야생초화단을 꾸렸던 그가 출소 후 전라도 산골에서 제2의 야생초 삶을 이어가며 깨달음을 얻어냈다. 이 책은 인가라곤 없는 심산유곡 두메산골에 컨테이너를 놓고 생활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중생활의 이야기다. 흔하디 흔한 산 속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외롭고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성찰한다면, 자연 속 삶도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게 저자 황대권의 설명이다. 저자는 ‘자연 속 나체 되기’를 자연 속 즐거움의 으뜸으로 친다. 벌레에게 물리고, 흙에 굽히며 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뱀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나와 똑같은 ‘생명’이다. 이 개별 생명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큰 생명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이렇게도 말한다. “웃이라는 것은 그저 한 겹의 피륙이 아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해온 거대한 ‘관념’이다. 자연과 소통하기 위해 알몸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이다.

그저 자연 속에 산다고 성찰과 명상이 가능한 건 아니다. 노력하고, 노동해야 한다. 그

**‘야생초’ 황대권의 10년 산중생활기
장작패기 통해서도 명상 할 수 있어
‘무주상보시’ 없으면 농부로 못살아**

속에서 다시 성찰이 나올 수 있다. 밭을 일굴 때면 잡초를 원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질긴 잡초 줄기를 뜯어내고 흙을 뽀얗게 후드득 떨어지는 흙이 그렇게 보드라울 수 없다. 잡초가 땅속 사방으로 뿌리를 뻗치며 굳은 흙을 잘게 부숴놓은 것이다. 저자는 공생 관계의 잡초와 작물을 경작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시키는 자연농법을 고민하고 있다.

귀농을 계획하는 이들은 단순 소박한 삶을 꿈꾸기 마련인데, 저자는 이렇게 이 책에서 조언 한다. “돈 몇 천원이면 마트에 가서 한 순간에 끝낼 일을 며칠을 두고 고민하고 노

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농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 소박한 삶의 근간은 단순 반복 노동”이라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과 더불어’ 살고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집착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깨달음이다. 저자는 “농부의 삶은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없으면 즐겁게 지속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의식주 생활을 들여다보면 좀 기이할 수 있다. 인가가 없는 곳이다 보니 어느 날 빨래하기 귀찮아 피를 내 흠뻑 벗고 일하다 급소를 벌에 쓰이고 만다. 그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온다.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를 유약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경계

심을 풀어주는 것이란 걸. 그리고 유약해진 나는 예전처럼 함부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거친 밥에 시원찮은 반찬으로도 맛있게 밥을 먹는 방법도 소개한다. 반찬이 아니라 밥 위주의 식사다. 반찬 두세 가지에 유기능 현미잡곡밥을 지어, ‘빚은 동작’에 집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먹거리를 자신이 수확한 것으로 채운다. 돌투성이 산록을 개간해 만든 그의 농장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처음엔 가장 바쁜 데서 자란다는 쥐과 여새, 가시딸기, 숙, 망초들만 가득했다. 독한 잡초들이지만 이들의 뿌리가 거친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흙을 보습보습하게 바꿔놓는다. 그의 산중일기는 자연회귀의 통찰과 자연의 역설로 가득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가 밝히는 자연회귀 매뉴얼〉

- 먹기=음식이 밥상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즐기며 되도록 오래오래 씹는다.
- 추위=인류의 미래는 추위를 견디는 힘에 달려 있다.
- 운전=타이어의 진동과 떨림을 모두 느끼며 알아차린다.
- 절하기=허리와 목을 깨끗이 세우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복한다.
- 농사=자연농업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무이한 농법이다.
- 건강=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몸을 자연의 질서에 맡기는 것이다.
- 노동=반복되는 단순노동을 통해 ‘거짓 나’가 소멸되는 느낌을 체험한다.
- 소통=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공감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란다.

불교계 기자가 쓴 선에 근거한 인생론

눈부시지만, 가짜

장영섭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현직 불교계 기자 출신의 저자가 선에 기초한 인생을 다뤘다. ‘삶의 본질과 해법에 관해, 낮은 목소리로’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란 화두를 숙고하면서 답을 붙인 글로 읽는다.

고찰과 해석을 위한 기본도구로는 달마대사를 원류로 한 ‘조사선’을 선택했으며, 동서양 철학자들의 입담도 쪼개 넣었다. 선 불교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인생에 대한 번뜩이는 통찰력이 돋보인다.

색다른 ‘힐링’이고, 상업주의의 탈을 벗은 ‘웰빙’이다. 저자의 문체는 아름답지만 차갑고, 쉽지만 단단하다.

마치 선사들의 어투를 보는 느낌이다. 생각이 빛어낸 착각과 망상의 산물인 ‘현실’

이란 녀석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고 다독인다. 또한 남들이 지어내고 남들이 만끽하는 문명이나 이념과도 “놀아주되, 놀아나지 말라”며 당차게 강조한다.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란 어떤 식으로든 살아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일체의 관념과 위선, 열등의식과 허례허식을 떨친 채 ‘지금 이대로 살아 있음’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는 무위진인, 자신에게 덧씌워진 환경과 신분에 실망하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과 방식으로 삶을 일궈나가는 조사선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아닌 순수한 집중으로 살이란 현상을 응대하라고 주문한다. 심지어 “남들의 입방아가 만들어낸 나의 인격이란 것도 견데기에 불과하다”며 세상의 편견에 도전한다.

오랜 사유를 통해 저자는 “이제 나는, 그냥 나다. 나답지 않거나 못해도 결국은 나다. 살고 그냥 살이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살도, 그 더러움의 크기만큼 참된 것이다”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지금 이대로가 존재의 완성이란 깨우침이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한문 쉽게 풀어낸 <반야심경>의 진수

한자로 읽는 반야심경

황윤소·윤희조·정현준 지음
사이이알 펴냄 | 1만8천원



불교고전어와 한글 중 한문만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자의 단점은 획수가 복잡할 뿐 아니라 자수가 많아 익히기 어려운 문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 하나 하나는 하나의 문장을 압축하여 상형문자로 표현한 것이기에 때문에, 현장법사가 산스크리트 전적, 특히 핵심의 핵심만을 실한 반야심경을 한역하면서 선택한 글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현장법사에 의해 선택된, 그림문자로서의 한자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곧 현장법사의 법장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표음문자인 산스크리트나 한글 전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묘미라 할 수 있다. 만약 한자 교수 방법이 개선된다면 한자의 두려움이 경감

될 것이고, 누구나 한문경전에서 법열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재)불교안양원 경전연구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처럼 경전 연구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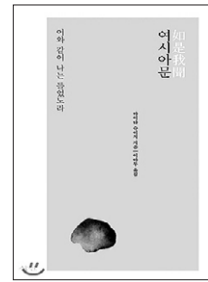
이 책은 한문경전에 두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현장법사의 <반야심경>을 연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경전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고 한다. 내용은 표제대로 광대한 반야경전의 심수를 매우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특히 물질적 존재는 무실체이며, 무실체인 것이 물질적 존재라는 의미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문구는 잘 알려져 있다.

<반야심경>은 여덟 문장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덤으로 4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 한자의 동시학습을 통해 동아시아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소 학구적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한자와 한문경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최고역경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역경가의 마음을 통해 부처님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스승은 무상의 진리를 몸으로 구현하는 존재”

여시아문

마이다 슈이치 지음 | 이마무 류킴
삼인 펴냄 | 1만2천원



“어떤 사람이 참 선생을 만나려는 것은 업연(業緣)입니다. 참 선생은 나를 완전히 죽여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날카로운 칼로 내 정수리를 쳐서 몸을 두 동강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옹근 존재가 그의 품 안에 묻혀 버릴 때 비로소 그를 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선생은 나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업연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선생이란 ‘자아를 초월한 힘’이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사상가 가운데 하나인 마이다 슈이치(1906~1967). 그가 스승인 아케가라수 쇼야 스님(1877~1954)에 관해 쓴 글은 주로 모은 것이 바로 책이다. 마이다는 열여덟 살 때 아케가라수 스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

**일본 불교사상가 ‘마이다’ 19년 스승 모서
1만여 쪽 정리한 것 중 ‘사제관계’ 주제 정리
“참스승은 내 이상 완전히 뿌리 뽑게 해 줌”**

그 인격과 가르침에 감동해 자신의 인생행로를 바꾸었다.

마이다 슈이치에게 아케가라수 스님은 붓다의 상(像)이자 이상적인 인간이었다. 아케가라수 스님의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이다는 과학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아케가라수 스님에 감화되어 과학에 흥미를 잃고 종교와 철학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교토 대학에 들어가 니시다 기타로 밑에서 서양철학을 공부한다.

그 뒤 마이다 슈이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 사범대학 교수로 일하며 불교 경전과 불교 사상을 공부해 불교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게 된다.

마이다 슈이치가 아케가라수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처음 그를 만난 지 19년이 지나서였다. 자기 만났을 때, 마이다 슈이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케가라수 스님한테 배우는 것임을 깨

닫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마이다는 직장도 가족을 고향 마을에 남겨두고 아케가라수 스님을 찾아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열망을 전한다. 그리고 1967년 타계하기까지 21년간 아케가라수 스님에게 배우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마이다 슈이치 인생의 전부였다.

마이다는 이 책을 통해 “나는 아케가라수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나에게 그는 그를 떠나서 다른 불법이 있을 수 없다. 그가 불법이다. 그가 석가모니 자신이다. 만일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의 인생도 실패적이다. 그래도 좋다. 나는 만족하면서 죽을 것이다.”라고 아케가라수 스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을 고백한다.

마이다는 1만 쪽이 넘는 글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이 나가노에서 아케가라수 스님 곁에서 지낸 21년 동안에 나온 것이다. 그 모든 글이 스승인 아케가라수 스님의 가르침을 부연 설명한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일부를 엮은 이 책 <여시아문>

문의 주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마이다 슈이치는 자신이 아케가라수 스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불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 믿었다. 아케가라수 스님의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이다는 과학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아케가라수 스님에 감화되어 과학에 흥미를 잃고 종교와 철학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교토 대학에 들어가 니시다 기타로 밑에서 서양철학을 공부한다.

이 책에서 마이다 슈이치가 강조하는 바 또한 불교는 오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속될 수 있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자체가 곧 불교라는 점이다. 즉 스승은 무상의 진리를 자기 몸으로 구현하는 존재이며, 스승은 목적이 아니라 안내자라는 것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의 스승인 석가모니가 바로 우리 들을 불법으로 인도시켜 주는 안내자인 것 처럼말이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 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